▌2010. 9. 19 ▌통권 제 7권 제 6호 2016년 9월 호

שלום ישראל SHALOM ISRAEL

가나안 이야기

「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

▌다비드 • 하다스 • 담희 • 단아 • 도하 • 다온

샬롬! 이스라엘에서 문안드립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한국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지난 한 달 정말이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셨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지금은 9월, 모두들 안녕하시지요? 급변하는 날씨 속에서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는 추석을 맞게 됩니다. 2016년 올 한해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이라니 정말이지 시간 참 빨리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달력도 이제 네 장만 남아있더군요. 장년 이맘때 한국에서 올려다보던 가을 하늘과 알록달록 단풍으로 수놓은 산들, 그 가을의 정취가 문뜩 그리워집니다..., 한국에서의 가을은 이스라엘보다 변화도 심하고 더 쌀쌀한 듯합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난 한달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을 나눕니다. 보시고 손 모아 주십시오.

성경 속 나들이(노아의 방주)

■ 어쩌면 하고...,

현장에서 살다보니 제 주변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통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접한 소식 한 가지, 이스라엘 내 '미쯔페 모디인' 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꽤 유명한 자전거 코스로 매주 금/토요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자전거가 있는지라 어쩌면 이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교제할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자전거를 타고 사람들이 지나갔을 만한 길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익숙지 않은 코스에 그만 내리막길에서 앞으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것보다 싱글 트랙을 이용하다보니 사람들을 마주하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넓은 산길에 어느 지점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도저히 가늠이 되질 않았습니다. 시도는 좋았는데 예상했던 일들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또 다른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예상했던 결과와 상관없이 제게 늘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아직 그만큼 젊어서 이겠지요..., 이 젊음의 시절을 몸소 부딪쳐 보고 또 땀 흘려 수고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더욱 바래봅니다.

침신대학원 졸업여행 강의

전도지 배치

■ G.T.I 사역 이야기

지난 8월 달은 이스라엘 국도 444도로를 주변으로 위치하고 있는 유대인 마을 3곳과 팔레스타인 마을 1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늘 제한된 전도지와 성경을 가지고 나갈 때면 좀 더 많은 양의 전도지를 확보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곳에 또 만나는 이들에게 넉넉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한 동역자를 통해 많은 양의 전도지와 성경책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를 통해 지난달은 가는 곳곳마다 넉넉히 전도지를 배치하고 또 만나는 이들에게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역에서 나눌 것이 많다는 것은 보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더 주어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계속해서 전도지와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족과 함께 G.T.I

미쯔페 모디인 자전거 코스

■ 베두윈 마을 이야기

베두윈 마을 철거 문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이동 없이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베두윈 마을에 공급되던 물이 끊기게 됐습니다. 3주전 유대인 군인들과 경찰들이 마을에 들어와 불도저로 물 공급 라인을 차단하고 앞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경고 했다고 합니다. 베두윈 마을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단순히 물 공급이 끊였다는 것을 떠나 강제 철거에 앞선 사전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더 진행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은 물 없이 광야에서 보내야 하는 베두윈 마을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힘겹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음껏 쓸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 씻는 문제도 그렇고..., 더 큰 문제는 외부로부터 물을 공급 받는 것도 제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마을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그래도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듯 했지만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소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함께 두 손 모아 주십시오.

물통에 담긴 물

해체된 수로관

Motto :' 무릎으로 살아가며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하면 가고 하라하면 행한다. '

「 기도제목 」

"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1:21)

1. 이번 달 G.T.I 대상 지역인 웨스트뱅크에 위치한 유대인 마을과 아랍 마을들을 축복 하소서
2. 베두윈 마을 철거문제와 마을 물 공급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3. 요압 아저씨 가정과 베두윈 마을이 복음화 되도록
4. 후원개발(교회/기관/개인)이 잘 이뤄져서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5. 가족 구성원 모두 건강하게 이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후원정보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단아,도하,다온)
- 외환(하나)은행: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타마르 프로젝트
- 외환(하나)은행: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연락처 」

※ 주 소 :
Eli Tavin 22/10, Jerusalem 9770001, Israel.
Rev. JAESUK JUNG

※ 연락처 :
- 휴대폰: +972-(0)58-6623513 (다비드)
+972-(0)58-4623514 (하다스)
- 집전화 : 070-8632-0432
- E-MAIL: jaesuk96@gmail.com

이스라엘로 보내는 소포는 우체국 일반 소포(예제:CP123456789KR) 만 가능합니다. EMS는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Motto :' 무릎으로 살아가며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하면 가고 하라하면 행한다. '